

警友칼럼

酒님을 멀리하여 내가 얻은 것은?

— 이 기 진 (시인, 경주문예회원)

丙戌年 새해가 밝아오면서 숙절없이 나의 82세도 83세로 주름을 더 새기게 되니 허허롭기 그지없지만 아름다운 황혼 빛이고 싶이라.

지난 12월 한 달 동안에 연간 술 소비량의 3분의 1을 마셔댄다는 우리네의 술관 풍습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 오랜 세월 그 대열에 동참해 있었던 나도 동통하다. 28세에 처음 입에 술을 댔을 때의(마산에서) 나의 주량은 주로 정종 두 땀병, 그로부터 꼭 50년을 수주(樹州), ‘卞영로’의 ‘명정(銘正)’이나 나대곤(羅大坤)의 ‘취해서 50년’ 못잖은 주락(朱駱)은 누렸으니 주색(酒色)에는 여한이 없지만, 그래도 날이면 날마다 술 간판이 애똥했던 술 한 잔을 한꺼번에 뭉개려 든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하물며 늙으면 추억에 산다 하거늘, 추억의 끈을 놓치면 생은 끝자락에 이르는 것.

40대까지의 주종은 정종, 그 후로는 빼갈이나 양주, 그러다가 퇴임 1년전부터 소주로 전환했었다. 맥주는 싱거워 기피해 왔다. 자연히 요정에서 대표집으로 격하되었는데, 거기서 칸막이 없이 탁 트인 인간 풍경에 맛과 맛을 들였었다. 시종하는 아가씨가 없어 아똥한 속계산이 없으니 허접함은 있었지만, 위나 술값이 싸지라 그래서 양껏 흠뻑 취하기가 일쑤였다.

내가 술 잘한다는 소문은 정평이 나있는 터지만, 비틀거린 기억은 거의 없다. 술자리를 벗어나면 이내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신경이 쓰였으니 그 재동이 다행이었다.

나의 음주에는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다. 돌이켜 보니 그것이 건강유지의 비결이기도 했다. 첫째, 99% 1차에서 끝내고, 둘째, 안주를 풀고루 섭취했으며, 셋째, 같은 자리에서 주종(酒種)을 바꾸지 않았고, 넷째, 취한 채로는 성애(性愛)를 하지 않았다.

나의 주력(酒歷)에서 또렷이 떠오르는 것은 우선 40대 시절, 동등에 있는 삼오정에서의 일이 꼽힌다. 동료들과 저녁식사겸 소주잔이 벌어졌다. 당시 두꺼비표, 오늘날의 ‘참이슬’에는 경품이 따랐다. 마개를 따면 연거푸 일곱 번이나 두꺼비가 나와 공짜술을 마셨던 것이다. 모처럼의 럭키 세븐이 무색해지랴 싶어서 그것으로 끝냈는데, 모두들 환호성을 지른 무척 행복한 밤이었다. 명동거리가 몽땅 우리들 것이었으니까.

다음으로 부산시경에 재직시의 일이다. 숙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마산의 한 여관주인으로 부터 긴급제보가 있었다. 투숙한 어떤 수상한 자들이 방안에서 무전을 치는 것 같다는 것이었다. 나는 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국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2명과 함께 마산으로 출동해선 권총을 들이대고 무난히 일당 3명을 검거하고 증거물도 압수했다. 스틸있는 모함이었지만 속으로는 겁나했었다. 그때의 식은땀이 지금도 느껴져 오싹해진다.

의기충천해 들어온 우리에게 국장은 사건을 그냥 중정(中情)담당에게 넘기라면서 우리 일행을 자기 관차에 태우고는 해운대의 요정으로 가서 칩사대 접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공작비라면서 금일봉을 나눠주시면서 “이 일은 절대비밀”이라는 엄명이 내려졌다. 나중에 추리해 보니 아무래도 중정의 모종공작을 우리가 잘못 댔던 것 같았다. 전혀 매스컴을 타지도 않았고 또 표창도 없었으니.

내가 것처럼 애타도록 목말라하던 주(酒)님을 멀리하며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데는 사연이 있었다. 5년 전의 새벽 3시, 버릇처럼 그 시간에 눈을 떴는데 천장이 빙빙 돌고 있었다. 나도 함께 돌고,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내

가 비명을 지르니 곁에 질린 아내 내 몸무게를 감내하지 못해 119에 신고했고, 급히 달려온 긴장한 대원들에 의해 부러부러 종합병원 응급실에 누워졌다. 진찰하더니 사망 한 일을 입에 넣는 것이 아닌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당뇨! 혈당수치가 35라, 저혈당이었던 것이다.

날이 밝자 퇴원해도 된다고 했지만, 놀란 아내와 나는 사흘을 더 입원해서 종합검진을 받았다. 다른 이상은 없다는 판정이 내려지던 순간의 안도감을 어떻게 표현할까.

나는 그 날로 술을 딱 끊었던 것이다. 하느님의 1차 경고를 아랑곳 하지 않았다가는 당장 곁에 데려다 놓으실 것 같기도 했고, 또 50년을 마셨으면 죽할 일이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진짜 미련한 것이 된다는 자각도 들었었다. 이후 생일에도 한 방울 안 마시는 술!

주(酒)님을 멀리하여 내가 얻은 것은 두 가지는 분명하다.

우선 건강을 자가 체크함에 있어 술이 원인일 거라는 걱정이 앞서지 않아서 마음이 편안하다.

다음은 아내의 신뢰회복이다. 전연 밤 10시, 11시가 귀가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저녁 6시면 집에 와 있다. 환경도 사나이의 결심이 두렵다는 아내의 깊은 주름이 애처로운 것은 모두가 나의 깨도 이탈리아 생긴 흉터의 합성으로 여겨져 자괴를 금할 길이 없다. 이제 남은 일은 가히 혁명적인 나의 이 변화를 지키는 일 뿐이다.



名士칼럼



민생치안의 현장에서 한 평생 봉사하다가 퇴직하며 나라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다시 헌신하신 재경향우회 여러분께 주님께에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기본을 지키고 모두가 본연의 자제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한 때라고 봅니다.

전 한 정당대표가 약속된 시간에 파란

自敍傳 「별, 남영동에 지다」를 읽고

- 「田錫麟 선배님께 드리는 편지」 -

— 황 지 연 (前 경찰대학 경찰학과장)

선배님, 보내주신 책은 감명(感銘) 깊게 읽었습니다. 지난날 선배님과 함께 법화산(法華山) 아래 경찰대학의 캠퍼스에서 경찰 꿈나무들의 희망찬 미래(未來)를 가구면서, 경찰의 보다 나은 내일을 기원하던 그 날의 추억을 더듬으며 선배님의 그 애뜻한 글을 밤새워 읽었습니다.

「별, 남영동에 지다」 씨땀지 못하고 떨어진 꽃송이처럼 남영동에 진 그 소담한 별, 그 큰 포부를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신 그 안타까움이야말로, 이 후배도 진정 가슴 아팠습니다. 선배님의 대학에서 증언자(證言者)요 의탁되어 동반자(同伴者)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회화교육(外國語會話教育)의 집종화, 팔방미인교육, 참여식수업의 도입, 사회저명인사의 특강 등으로 선배님의 경찰대학 교육비전은 누구도 추종할 수 없을 만치 참으로 앞장섰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의 일류교수 초빙에 의한 교육수준의 향상, 훌륭한 경찰간부의 양성을 위한 최선의 교육방책을 실현하려고 몸부림치던 그날들을 회상하면서 참으로 감개무량하였습니다.(중략)

선배님의 청부론(淸富論), “다만 더럽고 부끄러운 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땅 흘리고 노력하여 이룩되는 부자, 즉 청부(淸富)가 되어야 한다.”(위책 17쪽)는 선배님의 지론(持論)은 그 당시 박봉(薄奉)으로 어렵게 살아가던 많은 경찰동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이조(李朝) 500년 청백리(淸白吏)의 표상인 익성공(翼成公) 황희(黃喜) 방촌 선조의 19세손인 저에게는 참으로 우람한 불덩어리 같았습니다.

선배님의 첫 과수원(果樹園)인, 조치원

수가 참석하지 않자 중앙위원회를 해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기본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사전에 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는데 이날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자 회의를 해산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더 기다렸다가 회의를 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경우 권위도 안 사고, 무엇보다도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란 판단에 따른 일이라 여겨집니다. 아울러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여야한다는 책임의식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본을 지키는 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임에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축구나 운동 경기에서도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 基礎가 잘돼 있으면 —

— 김 장 환 (극동방송 사장, 목사)

기본기 속에서 테크닉을 익히거나가야 실력이 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시간을 비롯해 돈 문제, 그리고 공중도덕에 대한 부분 등에서 기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 꿉니다. 새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기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몇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공(SUCCESS)의 이니셜을 따서 다음과 같이 풀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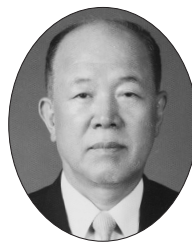
S - Salvation (구원)
U - Understanding (이해심)
C - Commitment (헌신)
C - Character (인격)
E - Enthusiasm (열정)
S - Sacrifice (희생)
S - Service (봉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을 얻었다는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남에게도 전하며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입장에 서서 이해하며 하나님 나라와 조국을 위해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인격을 지니고 식지 않는 열정과 주변사람을 위한 희생정신을 기본으로 봉사할 때 새해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새해에는 먼저 우리가 바로 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기초를 다시 세우고 닦는 원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국 120여 만명에 이르는 재경 향우회원님들과 15만 현직 경찰관님들 가정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시위문화, 기필코 개선해야 한다

— 최 중 락 ((주)에스원 고문, 前 총경)



최근 몇 일간 경찰과 관련된 일련의 뉴스를 접하고 마음이 착잡해 졌다.

지난달 15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청은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하여 버렸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와 인권단체 등에서는 오히려 경찰청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남영동 경찰인권기념관을 점거하고 공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농민들이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고, 급기야는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옷을 벗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 나라 시위문화가 만들어낸 불행이며, 진정 바뀌어야 할 것은 경찰청장이 아니라 폭력시위 문화인 것이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자. 시위대가 국회를 점령하려는 것을 막는 것은 정당한 경찰의 업무수행이다. 시위가 폭력양상을 띠면서 점차 과격해 지는데 이들을 진압하지 말라는 것은 곧 이들 시위대에게 국회를 빼앗겨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불법시위 진압이라는 정당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찰들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경찰간부를 직위해제한다면 말단

전경들이 시위진압을 거부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같은 시기에 홍콩에서는 우리나라의 폭력적인 시위문화가 된서리를 맞고

급기야 폭력적 시위에 참여했던 농민들이 홍콩 경찰에 구속되는 사태가 생겼다. 선진국에서는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는 폭력시위대에 대해서는 총기로 진압을 한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집권층은 시위대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감싸 안아주고 보호해줘야 할 경찰을 오히려 질책하고 있으니 우리 경찰의 사기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위대의 표췌한 축장이 경찰의 눈을 향해 쏘여오고 있고, 쇠파이프가 경찰의 머리를 내려치고, 경찰차가 불에 타는 공포스러운 전경터가 현실의 시위현장이다. 이들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 사회는 오히려 경찰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닌가?

경찰이 멀리 받으면 당연히 범법자들이 활개를 치게 되고, 경찰이 존경받는 사회에서는 치안이 안정케도를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선진국인지 여부는 그 나라 경찰의 수준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정병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경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조직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며, 폭력시위 대들에게 편을 드는 사회여론도 큰 문제이다.

폭력시위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우리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檢·警 搜查權 調整, 더 늦출 수는 없다!

- 1962년 신설된 헌법 제12조 3항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의 수사권 조정건의는 완전한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실화된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상호협력적인 檢·警 관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입니다.-

1. 日帝의 잔재인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일본경찰은 이미 57년전(1948년)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근대적인 상명하복의 檢·警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발전시키고,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갖게 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검찰은 존경을, 경찰은 더 큰 신뢰를 받고 있다. 우리도 성숙한 민주사회의 여건에 맞게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두고, 경찰과 검찰은 경쟁과 협력의 상호보완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

2 수사기간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수사분권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구상에 수사권 없는 경찰은 한국뿐이며 오늘날 전세계의 형사소송절차는 기소의 주체와 수사의 주체로 분리되어 경찰과 검찰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수사권(개시·종결), 공소권, 형집행권 등을 독점한 막강한 경찰이 1차 수사기관화 하고 있으므로 檢·警方간 수사권의 본배로 견제와 경쟁을 통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국민의 권익과 인권은 크게 신장될 것으로 확신한다.

3. 더 이상 자질문제, 인권보호라는 구실로 경찰수사권 현실화를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20년간 4년제 경찰대학을 통한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간부의 양성, 사법·행정고시 합격자 특채, 간부후보생 배출, 법학전공 수사요원 특채, 조사요원 간부화, 인권담당관 배치, 유급 자문번호사제 도입, 피해자 보호팀 운영 등의 자질향상과 인권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선진국 수준의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었고 순경채용자의 75%가 대졸학력 이상 수준이 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60년간 주장되어 온 경찰수사권의 시기상조론은 이제 그 명분을 잃었다.

4. 수사분권 요구는 기관 이기주의적 바깥릇 다름이 아닙니다.

범죄사건(연간 160여만건)의 97%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법률상 수사주체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연간 사건관련자 150여만명이 경찰과 검찰에서 중복조사를 받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민의 불만해소와 사법서비스 편의증진을 위해 경찰의 독자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한다.